

# 유럽의 대학박물관 ..... 튜빙겐 대학박물관의 예

배기동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 I. 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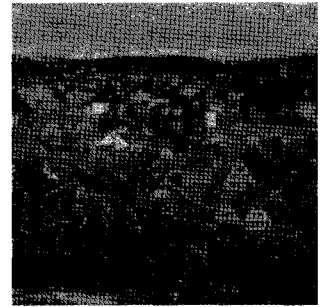
유럽지역에서는 대학이 일찍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종합적인 성격의 박물관을 가진 대학은 비교적 많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개별학문의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여 학문별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대학의 공통적인 시설로서 박물관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과 사회와의 관계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에 박물관을 구성하지 않고 도시 내에 박물관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에 따로 박물관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학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를 창조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현재 대학박물관의 사회적인 위상을 정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이다. 유럽에서 대학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지만 학문의 발달과정에서 구성된 자연스러운 전문박물관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전공분야에서 전공과 관련된 수집품들을 전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특히 고대유물을 수집전시하는 것은 유럽의 오래된 전통이며 또한 유럽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와 로마 등지의 고대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도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대체로 고전고고학자들이나 지역고고학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것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종합적인 성격의 박물관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존의 학문분야에서 수집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또는 사회적인 기부를 받아서 일종의 종합박물관을 구성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유럽지역의 새로운 현상이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적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서 구성되는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방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튜빙겐대학의 박물관도 최근에 구성된 일종의 종합박물관으로서 유럽지역의 대학박물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이 박물관의 예는 우리 사회가 대학박물관을 어떻게 보고 육성하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독일 튜빙겐대학 박물관

### 1. 튜빙겐 시와 시의 박물관시설

튜빙겐은 독일남부에 있는 대학도시이다. 물론 중세의 성을 중심으로 작은 도시가 발달하여 있고 대학은 이 성안에 있다. 부근에는 남부지역의 공업도시인 슈튜트가르트라는 큰 도시가 있다. 현재 튜빙겐 시는 1999년 통계로 면적이 일 만 헥타아르 정도이고 인구는 8만 1천명 정도이다. 인구의 반 이상이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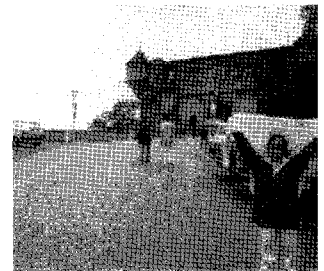
에 관련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학생이 만 구 천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도시는 천 오 백년 전에 게르만 한 부족이 정착하면서 생겨났다고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1078년에 하인리히 4세가 카놋사의 굴욕이 있는 이 후에 생겨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튜빙겐 대학은 1477년에 에버하르트 임 바르트공작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인구가 고작 3천명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주로 신학, 법학, 의학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튜빙겐 시에는 몇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튜빙겐 예술의 전당, 튜빙겐 성 박물관, 코른하우스시박물관, 자동차 및 장난감박물관, 철도박물관 등이다. 이 중에서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튜빙겐 예술의 전당과 튜빙겐 성 박물관이 있다. 르네상스형의 튜빙겐 성은 1816년부터 대학에서 사용하여 왔는데 박물관은 1997년에 “튜빙겐성박물관(Tuebingen Schloss Museum)으로 개관되었는데 1507년에 만들어진 성입구의 원형홀과 1537년에 만들어진 기사회랑과 같은 성건물들의 내부구조를 연결하여 고대건축 속에 현대적인 박물관을 만들었다. 실제로 이 성의 원형 홀은 이미 1833년에 동전과 골동품의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축공간이다. 현재 튜빙겐 성 박물관은 고고학적, 역사학적 그리고 인류학적인 여러 가지 주제를 포괄하는 종합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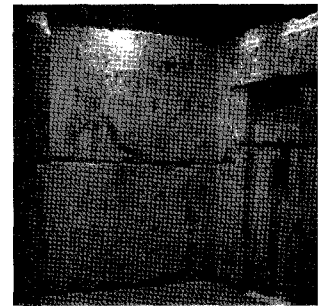
튜빙겐시 전경

## 2. 박물관으로서의 역사 및 대학박물관으로 전환

튜빙겐성은 튜빙겐시의 약간 높은 구릉지에 건립되어 있는데 주변에는 해자가 돌고 있고 성의 정문을 들어가면서 내부에 중정을 두고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문을 포함한 일대가 박물관이고 중정의 반대편에는 고고학연구소와 같은 관련분야연구소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 있다. 이 성이 대학박물관으로서 개장되기 이전에도 이미 고대유물과 인류학적인 수집품에 관련된 특별한 주제의 전시들이 유치되기도 하였다. 1789년에 슈투트가르트 정부자문관이었던 칼 지그문트 튜그스의 수집품 중에서 “튜빙겐 기사”라는 주제의 전시가 있었으며, 1888년에는 츠비팔덴지역의 정신병원 원장인 칼 폰 세퍼의 수집품인 희랍의 은 동전과 로마 금동전들을 전시하였고 1906년과 1911년 사이에는 슈투트가르트의 사업가이었던 에른스트 폰 지그린 폰데의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고대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한 바 있고 또한 아우구스틴 크리저가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에서 수집한 목재도구에 대한 전시가 있었다. 근래에는 다수의 고고학적인 프로그램들이 전시되었는데 리하르트 슈미트의 페테르제지역의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품들 그리고 구스타프 리에크의 구석기시대의 유물에 대한 전시가 1931년에 있었다. 튜빙겐 성은 이미 유물



튜빙겐성 입구 박물관 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집트 고분내부 전시물

들의 창고와 일시적인 전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대학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다. 바덴 뷔르템부르크 주정부가 성의 구조를 개조하여 문화유산과 관련된 수집품들을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전시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대학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 3. 박물관의 활동범위와 운영이념



전시장 내부

튜빙겐의 박물관이 지향하는 방향은 학문에 있어서 보편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보편적인 박물관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편적”이 가지는 의미는 “특수한 영역”에 치우치거나 사변적인 해석의 입장에서 전시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동안 고전적인 예술품에 대한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박물관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을 새롭게 확대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전적인 박물관, 즉 고대의 예술품의 보관 전시장에서 문화적인 산물로서 유물을 해석하려는 작업장으로서의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의 수평적인 연결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예로 현재 그림과 정보, 실제와 추상, 미학과 실제적인 사용, 예술과 수공예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대유물들의 수집품들 뿐 아니라 근현대의 미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주제가 가지는 의미를 예술과 학문의 보편적인 체계 속에서 해석하기 위한 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이외에 인류의 진화와 문화의 진화과정 그리고 지역적인 문화의 다양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문화의 지역적인 비교, 즉 자국과 타국의 문화적 비교, 해석과 실제, 예술과 기술 등과 같은 상호 대비적이며 이해에 보완적인 영역을 동시에 생각하게 함으로서 문화해석의 새로운 학문적인 영역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튜빙겐 성박물관은 그저 유물을 전시하는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학문적인 작업의 창으로서의 박물관역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창을 통하여 관람자들이 현대 학문의 성과를 접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해석을 이해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화인지의 지평을 극대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 4. 튜빙겐성박물관의 운영체계

튜빙겐 성 박물관은 실제로 대학의 재산이 아니고 시나 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시나 주정부의 재정적인 것이 절대적이다. 운영은 결국 시나 주 그리고 정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게 되는데 박물관 전시의 학문적인 지휘는 튜빙겐 대학의 관련학과의 교수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4개의 연구소, 즉 선사 및 원사고고학연구소, 민족학연구소, 민속학연구소 그리고 고전고고학연구소가 박물관 운영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는 각 학문분야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로 운영되는데 문화과학부와 사회과학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박물관운영의 책임은 튜빙겐 대학 선사원사학연구소 소장이자 유럽구석기고고학자인 니콜라스 콘라드교수이다. 콘라드 교수가 실질적인 관장인 셈이다. 그래서 운영체계 중에서 재정적인 것은 결국 시와 주 그리고 중앙정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만 학문적인 것은 튜빙겐 대학의 관련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이끌어 가는 2원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전시체계는 아래층에 상설전시와 윗층에 특별전시로 구분되는데 상설전시에는 트로이 유물을 주로하는 고전고고학적인 자료가 전시되고 있고 특별전은 주제를 선택하여 구성하게 되는데 박물관의 소장품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유물들로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전은 대학교수나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조사작업의 성과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전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데 상설전시는 무료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III. 유럽대학박물관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

유럽의 대학들은 대체로 종합적인 성격의 박물관을 가진 대학은 별로 없다. 영국에서는 대학에 박물관이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 대륙 쪽에서는 암스테르담대학과 같이 대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적인 성격의 전시관들은 대학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전통적인 명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스터 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고고학박물관, 지질고생물박물관, 광물학박물관, 식물학박물관, 성경박물관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성경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박물관 체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체계에 따라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학과의 교수진들이 학문연구과정에서 수집한 것들과 고고학연구소와 같은 연구소에서 조사활동 중에 수집된 것을 그 기초로 이루어진 박물관들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학문적인 수집품들은 아직도 박물관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프랑스의 고인류연구소의 경우에는 석기공작에 대한 수집품이 전 세계의 것들에 걸쳐 있지만 아직도 독자적인 전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집품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박물관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이 수집들이 과거의 단순한 골동수집이 아니라 조사연구의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전시기획에 따라서 엄청난 학문적인 성과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지역의 대학박물관의 발달과 이러한 현황은 이 지역의 대학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박물관 영역에 있어서는 대학과 사회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물관운영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지역사회나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학의 문화유산관련 학문분야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박물관의 구성과 운영에 깊숙이 관련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파리 인간박물관의 관장을 고인류연구소 소장이 맡는 것이라든지 또는 지역박물관인 캉송의 구석기 및 지역사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중



유럽구석기 특별전의  
동굴벽화복원

양과 지방의 여러 대학의 관련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한 대학의 부설연구소가 지역박물관에 소재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유럽지역에서는 대학과 사회의 지역적인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의 사회공간이 결국 동일한 문화공간이며 이러한 문화공간에서 문화창달의 의무를 대학이 지고 있는 셈이어서 결국 대학 내의 박물관구성과 운영의 의미가 크지는 않은 것이다. 튜빙겐의 작은 도시에서도 공립박물관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튜빙겐 성 박물관 이외에도 코른 하우스 시립박물관, 코른 하우스 역사박물관, 장난감 박물관 등이 있다. 이 대학도시라는 작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다수의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수요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각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문화공급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IV. 한국의 대학박물관의 지표로서의 유럽대학박물관

대학박물관이 설립된 대학의 숫자만으로 본다면 한국의 대학박물관은 유럽에 대해서 앞서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대학박물관을 구성하는 대학들이 늘어가는 사실에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박물관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번째로 중요한 것이 대학박물관을 사회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지적자원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며 이것은 대학박물관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이 사회의 구성부분으로서 사회의 문화적인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데 유럽의 대학들은 대학과 사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확고한 사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사회에 박물관을 구성하는데 직접 참여하게 되고 사회는 이러한 것을 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학문적인 고유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박물관의 문제는 대학박물관이 대학당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학교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점이 어려운 점이다. 물론, 대학의 박물관은 대학의 이미지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이고 단기적인 이익도 창출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유럽의 체제와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박물관이 대학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문화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이 한국대학의 현실인 이상 대학박물관도 이러한 사태를 극복할 여러 가지의 체제를 만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결국 사회의 문화간접자본으로서 대학박물관

관을 설정하고 이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공간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수요나 그 질에 있어서 아직도 유럽의 수준에 미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이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문화공급의 자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체제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이라고 하여 대학에게 재정적인 것을 일임한다는 것은 문화공급을 주도하여야 할 정부로서는 새로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대학이 문화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이것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재정적인 후원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복지국가에서 대학박물관의 자원을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것은 유럽의 대학박물관을 보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튜빙겐대학의 성박물관의 정책에서 한국대학박물관이 배워야 할 점은 박물관이 학문영역을 제한하거나 또는 고대 유물의 라열적인 전시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반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현재의 국공립박물관의 체제에서도 현저하지만 과거와 현재, 자문화와 타문화, 그리고 각기 다른 문화해석의 대비적인 전시 등등 학문적인 새로운 성과들을 일반인들에게 이해시키고 새로운 문화적인 이미지 창조 등을 실험적으로 주도하는 공간으로서 대학박물관의 기능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튜빙겐 대학박물관의 전시구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박물관들도 단순히 유물의 라열적인 전시기능에서 벗어나 학문의 새로운 차원을 대중화하는 공간으로서 박물관의 기능을 살려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곧 대학박물관의 특성화에 부합되는 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이라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박물관이 첨단지식의 대중화공간이 될 것이고 또한 학문의 통분야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